

ICT산업 HOT CLIPS

ISSUE 2019.05.09

N0.21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01 ICT산업 Brief

- 기고문 | 인공지능이 만드는 미래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동향 | 엣지 컴퓨팅의 기술 특징과 산업 전망
5G 상용화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
2019년 블록체인 도입 본격화
새로운 전기를 맞은 스마트팩토리
- ICT Espresso

02 ICT기금 Scrap

- 인포그래픽 | ICT기금 위탁사업 실태조사 안내
- 알림 Talk | KCA 기금사업관리본부 일정안내
- 캘린더 | ICT 유관기관 일정 공유
- 부정수급예방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안내
- Invitation

03 Job Talk

- 수행기관 채용정보
- 일자리 정책 및 뉴스
- ICT기금사업 맞춤형 일자리매칭

ICT산업 HOT CLIPS

ISSUE 2019.05.09 **N0.21**

ICT 산업 HOT CLIPS

ISSUE 2019.05.09 NO.21

Contents

01

Chapter

ICT산업 Brief

기고문 | 인공지능이 만드는 미래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동향 | 엣지 컴퓨팅의 기술 특징과 산업 전망
5G 상용화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
2019년 블록체인 도입 본격화
새로운 전기를 맞은 스마트팩토리

ICT Espresso

02

Chapter

ICT기금 Scrap

인포그래픽 | ICT기금 위탁사업 실태조사 안내
알림 Talk | KCA 기금사업관리본부 일정안내
캘린더 | ICT 유관기관 일정 공유
부정수급예방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안내
Invitation

03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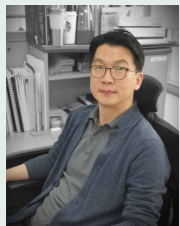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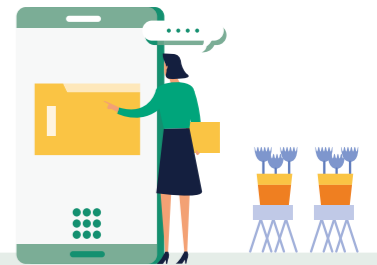
Job Talk

수행기관 채용정보
일자리 정책 및 뉴스
ICT기금사업 맞춤형 일자리매칭





재도약을 일궈낸 기업들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변화속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엿볼 수있고
이 미래 속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미래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글 윤준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융합산업본부 AI융합전략팀 팀장

단시간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기존 기술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재도약을 일궈낸 기업들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엿볼 수 있고 이 미래 속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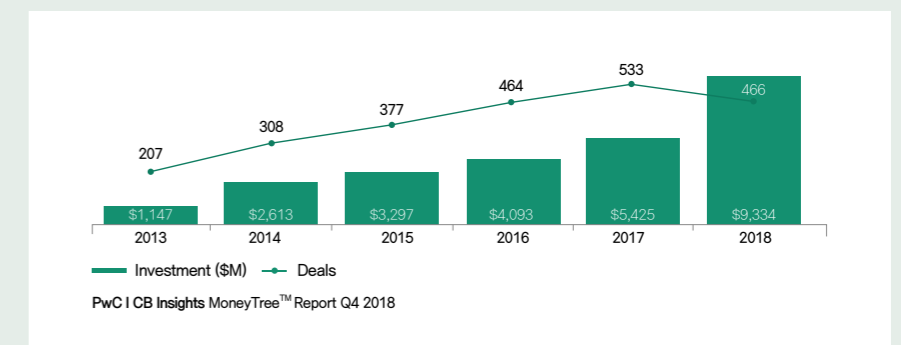
중국의 ByteDance는 '12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추천엔진을 활용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로 단숨에 7억 명의 가입자 수를 확보하고 약 31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했다. 비슷비슷한 정보가 차고 넘치는 요즘 세상에서 개인별로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핵심은 인공지능 뉴스 추천엔진이 새로운 뉴스시장의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은 그 위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규모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기존 검색 포털이나 블로그 같은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추천엔진으로 뉴스 유통 플랫폼이 이동하는 것이다. 참고로 세계 최고의 유료 영상 플랫폼 기업인 넷플릭스는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약 8만개의 카테고리로 정교하게 분류하여 고객의 취향, 선호도, 시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영화 추천서비스를 한다. 실제 넷플릭스의 전체 영상 콘텐츠 시청의 75%는 추천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14년도에 설립된 중국 센스타임은 MIT 출신의 안면인식 전문가들이 설립하여 현재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고 안면인식 기술을 금융, 유통, 치안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의 가치는 시장에서 그 기업이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라면 센스타임의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이 가지는 시장의 영향력의 크기는 센스타임의 약 6조 원의 기업 가치와 비례한다고 판단된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반복적인 단순 업무를 SW로 자동화 하는 오래된 비즈니스 솔루션이다. 이 기술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새로운 프로세스 혁신을 이룬 워크퓨전은 '10년도에 설립된 미국기업으로 제조, 금융 등 모든 산업 영역에서 SI기반으로 업무·생산 프로세스를 자동화, 최적화 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제는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막대한 희망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나 성과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제조업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설비 등의 이상을 탐지하고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추천, 또는 판매량을 예측하는 부문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보이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AI에 대한 기대와 가시적인 성과는 AI 스타트업에 자금이 몰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18년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약 99조 원을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이중 약 10%인 9조 원이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 되었다. '13년부터 미국 벤처캐피탈의 AI 스타트업 투자는 연평균 36%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7년에서 '18년 구간에서 72%로 급증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모태출자펀드 투자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분야에 '17년 216억 원이 투자되었으나 '18년 약 1,200억 원으로 약 5.6배 증가했다.





자본시장의 투자뿐 아니라 AI 스타트업에 대한 M&A도 '17년 115건으로 '16년 80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중 가장 많이 인수한 기업은 구글로 '10년 이후 14개 AI 스타트업을 인수하였다. 벤처 스캐너에 따르면 인수된 AI 스타트업은 AI 응용 부문으로 190억 달러로 AI 플랫폼 부문 투자(90억 달러)의 두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AI와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등의 사례에서 AI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은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고객의 니즈를 찾아 해결하고 그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낸다.

해결하지 못했던 특정 문제해결, 생산성·효율성 향상,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발굴 등 다양한 산업·사회에서 AI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은 산업별 인공지능 Use Case를 분석하여 AI 적용 우선순위를 발표했는데 제조, 의료, 금융 분야 AI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발표했다. IDC, 맥킨지, 가트너 등의 조사기관이 발표한 산업별 Use Case는 아래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AI응용 사업모델은 현재 B2C 서비스 보다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AI모델(알고리즘)과 데이터셋을 기업 간 판매하는 B2B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분	주요 Use Case			
금융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고객서비스
의료	진단·처방	신약개발	모니터링	유전자분석
보험	위험 측정	보상 절차	사기적발	고객서비스
법률	판례 조사	법률검토	소송전략	법률준수
제조	예측유지보수	공정최적화	품질검사	자재물류
소매	고객분류	고객맞춤	가격최적화	수요예측
교통	자율주행차	보험최적화	배차관리	제어응용
유틸리티	공급관리	수요최적화	보안	고객경험



특정 AI 응용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시각지능 등 다양한 공통기능들은 미리 개발되어 있는 AI엔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통 기능인 AI엔진은 그 자체로 다른 서비스와 융합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AI 언어엔진은 음성인식, 기계번역, 질의응답, 챗봇 등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서비스 API 형태로 제공되며 AI 응용서비스 뿐 아니라 서비스 로봇에서도 사용 된다. AI 시각엔진은 객체 인식·구별, 동작이나 장면이해 등 사람의 눈을 대신하여 품질검사, 질병진단 지능형 CCTV, 자율주행차 등 전반에서 핵심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개발은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연산을 무수히 반복해야 하는 작업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기업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품질을 높이는 부분에 강한 수요가 존재하게 된다. 특정한 단순 연산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특화 된 부문에 AI 반도체가 있다면 무수히 반복되는 개발과정을 단축시켜 적시 제품을 출시 할 수 있고 품질 고도화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또한 AI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레이블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데이터 가공 자동화 툴이나 데이터 가공 아웃소싱 등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다.

AI분야는 이제 막 태동한 초기산업으로 한국이나 해외 주요국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더 많은 기업의 공격적인 인공지능의 적극적인 활용과 수많은 스타트업 탄생은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조금 더 빨리 맞이하는 방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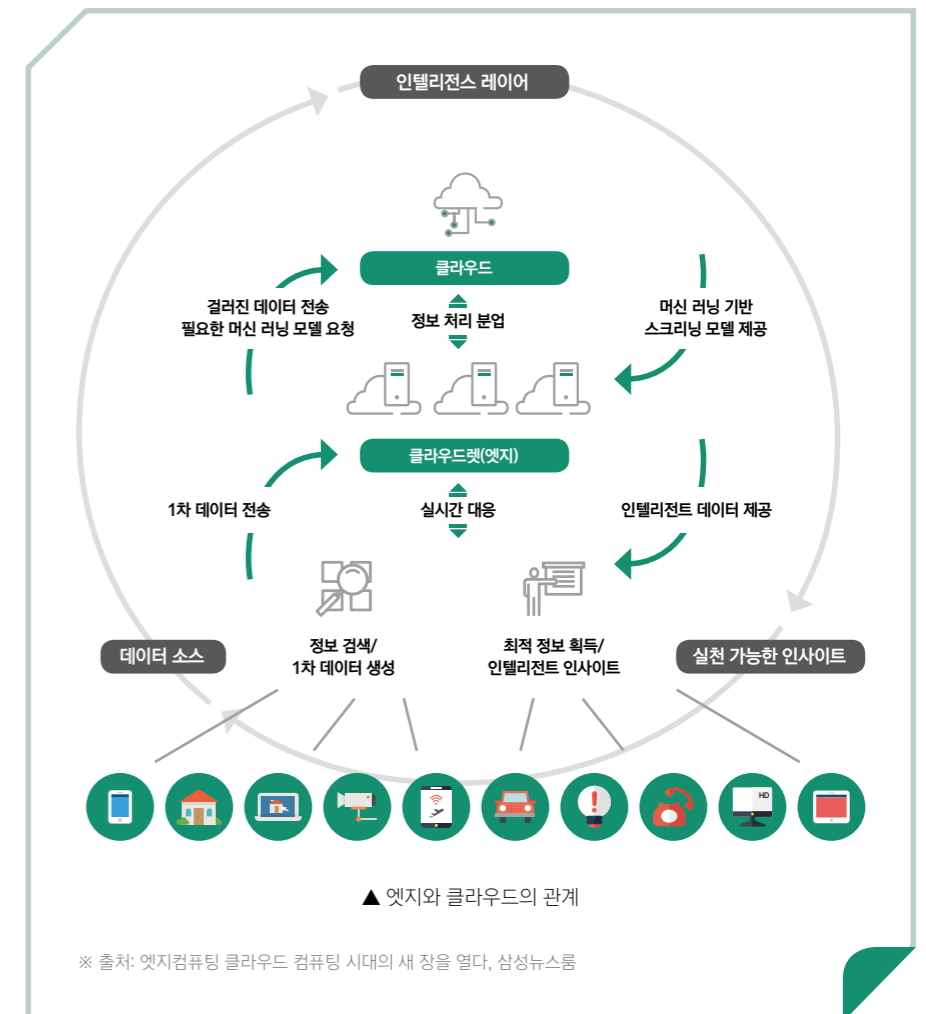
엣지 컴퓨팅의 기술 특징과 산업 전망

○ 서론

- ▶ IoT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통신량이 폭증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지연을 발생과 일시적 네트워크 중단 등의 기술적 한계가 표출하기 시작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엣지 컴퓨팅이 등장함.
- ▶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대조적 개념의 컴퓨팅 방식으로, 클라우드나 중앙이 아닌 네트워크 종단에서 컴퓨팅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함.
- ▶ 신기술로서의 엣지 컴퓨팅이 도입되면, 다양한 응용분야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 어떤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지 분석이 필요함.

○ 엣지 컴퓨팅 기술 특징과 산업 전망

- ▶ 엣지 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 요소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 ▶ 네트워크 불안정, 불필요한 데이터 문제, 프라이버시,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수많은 스마트 기기와 자율 자동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공장 등 새로운 응용 영역이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엣지 컴퓨팅은 필수적임.
- ▶ 엣지 컴퓨팅을 통해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보완할 수 있음.
 - ▶ 클라우드는 엣지 컴퓨팅을 통해 더 강력해질 수 있으며, 활용 분야의 확대가 기대됨.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체가 아닌 공존을 통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엣지 컴퓨팅은 대기시간 감소와 비용 절감,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의 증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임.
- ▶ 엣지 컴퓨팅은 IoT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네트워크 엣지단에서 효율화할 수 있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실시간 컴퓨팅을 보장해 대기시간을 감소할 수 있음.
- ▶ IoT에 투자하는 기업은 클라우드에서 실행될 서비스와 엣지에서 실행될 서비스를 구분하여 IoT 관련 비용 절감이 가능함.
- ▶ 또 엣지 컴퓨팅은 시간에 민감한 IoT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엣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등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해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의 증가가 가능하고, 엣지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해 데이터 센터와 센서 간 데이터 교환을 줄여 보안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음.
- ▶ 엣지 컴퓨팅의 특징은 자율 주행 자동차와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산업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음.
- ▶ 자율 주행 자동차는 엣지 컴퓨팅의 안전성을 활용한 사례임. 자율 주행 자동차는 데이터 정보 처리 결과가 사용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네트워크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엣지 컴퓨팅의 활용 가치가 높음.
- ▶ 엣지 컴퓨팅의 즉시성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적용되어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보여주는 엣지 컴퓨팅의 활용 가치가 높음.
- ▶ 앞으로는 엣지 컴퓨팅이 모바일 자체 처리 역량의 발달과 드론 활동 반경 확대, IoT 기술과 결합한 에너지 절감 실현 등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결론 및 시사점

- ▶ IoT 기술이 발달하고 기기들이 스마트해지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핵심기술 임.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은 필수적인 기반 기술로서, 기술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음.
- ▶ 향후 엣지 컴퓨팅을 필수적으로 활용하게 될 분야에 대한 사전에 고려가 필요하고,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ICT 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는 기업과 정부, 관련 기관의 많은 관심이 필수적인 상황임.



● 2019년 관련 ICT기금사업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한국정보화진흥원)
클라우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고문헌

[1] 박준민 책임연구원(2018년), 엣지 컴퓨팅이 가져올 변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신성식 외 3인(2019년), 엣지 컴퓨팅 시장 동향 및 산업별 적용 사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2

5G 상용화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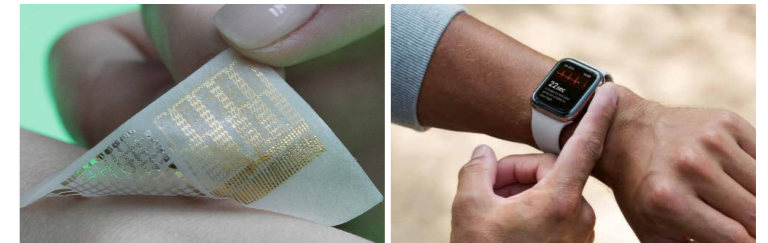
- ▶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등 디지털 기술이 의료에 접목된 분야임.
- ▶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간이 원하는 미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이전보다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존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5G 상용화 소식이 더해지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혁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임.



○ 디지털 헬스케어의 동향

- ▶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는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등의 기술이 접목되면서 다양한 생체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음.

- ▶ IoMT(의료 사물인터넷)은 사람의 심전도, 뇌파, 혈압, 혈당, 체온과 같은 생체 정보를 전송하는 의료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원격 센서, 무선패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아직까지는 가정에서 기본적인 생체 정보만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



▲ 웨어러블 의료용 패치를 피부에 부착한 모습

▲ 애플워치의 심전도 기능

※ 출처: (좌) IBS (우) 폰아레나

○ 5G를 통한 혁신

- ▶ 의료 사물인터넷은 5G를 만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됨. 5G 통신 환경이 구축되면, 다양한 IoMT 기기 간에 실시간 상호 연동이 가능해질 것이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 ▶ 에릭슨 컨슈머랩의 보고서에 따르면, 5G 이동통신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점을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동시킬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 생체 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 실시간에 가까운 5G의 통신 속도와 안정성은 원격 수술의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고, 의료 공급자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거주자도 5G 통신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특히, 5G는 응급 상황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임. 5G로 통신할 수 있는 응급차 안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원격으로 연결되어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 디지털 헬스케어와 5G가 더해진 기술 수준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 사용자는 인공지능의 추천 건강 관리 서비스를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임.
- ▶ 5G를 통해 시간과 공간 제약을 극복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함.
- ▶ 구글, IBM,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자사의 기기 또는 인공지능과 연동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업 모델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임.

▼ 표1. 글로벌 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진출 현황

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진출 현황
구글	- 지주사 알파벳의 자회사 베릴라, 칼리코, 딥마인드를 통해 다각도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 -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부터 노화 예방, 인공지능 기반 질병 진단
IBM	- 머지헬스케어(의료영상분석), 익스플로리스(클라우드 기반의 의료데이터 분석) 인수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의 역량 강화 -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을 통해 암 진단과 치료 및 신약 개발 연구 지원
애플	-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통해 헬스케어 시장에 접근 - 애플워치에 심전도 측정 기능을 탑재하고 스마트폰과 연동
아마존	- 일반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유통에 이어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에 헬스케어 관련 기능을 준비

※ 출처: 삼성KPMG 경제연구원

○ 결론 및 시사점

- ▶ 디지털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의 모습도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임.
- ▶ 웨어러블 기술의 발전과 5G의 상용화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이 주는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 국내에서도 5G 기술을 디지털 헬스케어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이슈, 분산되어 있는 의료 데이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5G를 통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도약을 시작해야함.



● 2019년 관련 ICT기금사업

휴먼케어콘텐츠 개발(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AI기반 정밀의료 응급시스템 개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고문헌

[1] 최윤섭(2018년),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삼성KPMG(2019년), 5G가 촉발할 산업 생태계 변화



2019년 블록체인 도입 본격화

○ 서론

- ▶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임.
- ▶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교육,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각국에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확대에 앞서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한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블록체인 도입 본격화에 앞선 준비 자세

- ▶ 2018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은 급락했는데, 이와 함께 블록체인과 암호 자산에 대한 기대 보다 이성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임. 이에 거품을 걷어내고 제대로 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음.
- ▶ 2019년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과장된 열기가 줄어들면서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
- ▶ 시장조사기관 Forrester는 2019년 블록체인 플랫폼 확산과 함께 자산의 토큰화가 큰 변화와 혁신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표1. 시장조사기관별 2019 블록체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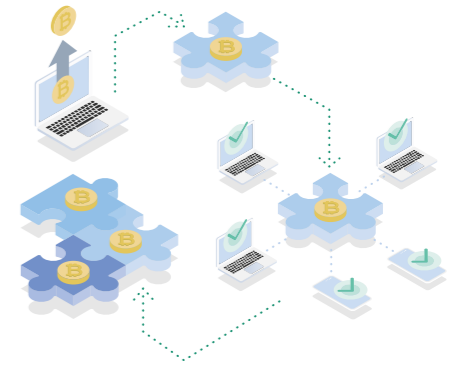
기관	내용
FORRE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에는 블록체인에서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기술 트렌드가 이동할 것이며, 플랫폼 확산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디지털 및 실물 자산의 토큰화는 주요 혁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
RESEARCH AND MARK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연간 평균(CAGR) 80.2%씩 성장해 '23년까지 23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IDC Analyze the Fu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까지 블록체인을 통해 구현된 산업의 가치 사슬이 옴니 경험(omni-experience)으로 확장되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 비용의 35%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Gart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블록체인은 미성숙하며 낮은 확장성을 갖고 있지만 '30년까지 3.1조 달러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출처: 2019년 블록체인 도입 본격화 예상...국가별 정부 지원 증가,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 ▶ 이 외 다수의 시장조사기관도 블록체인 기술 진화가 이어지면서 향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RESEARCH AND MARKETS은 세계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연간 평균 80.2%씩 성장해 2023년까지 23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 IDC는 2021년까지 블록체인을 통해 구현된 산업 가치 사슬을 통해 거래 비용의 35%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또 Gartner는 아직까지 블록체인은 미성숙 하지만, 2030년까지 3.1조 달러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세계 각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 독일은 2019년 하반기까지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중국은 하이난성에 기업지원 정책을 담은 ‘RSC 특구’ 실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블록체인 특구’도 포함시켜 2019년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 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몰타, 키프로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연합 7개 회원국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2018년 12월에 결정해 2019년 블록체인의 활용이 기대되는 상황임.
- ▶ 국내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총 87억 원 규모 예산을 마련해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블록체인 ID·인증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임.
 - ▶ 또 지난 2019년 3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블록체인 초기시장 창출을 목표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민간주도국민 프로젝트’에 참여할 3개 컨소시엄을 선정했음.
- ▶ 국내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교육 분야를 비롯해 의료·교통·관세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 ▶ 블록체인 활성화에 앞서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 블록체인은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의 잠재력을 평가해야 함.
- ▶ 또 활용 사례를 검토해 구축 전략을 수립하며, 해당 기업에 해당되는 핵심 가치 제안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도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글로벌 블록체인 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함.
- ▶ 블록체인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입 전략의 수립에서부터 향후 확장성까지 고려되어야 함. 체계화된 컨설팅 방법론은 유사 프로젝트 구축이나 규모의 프로젝트로 확장해 나가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



● 2019년 관련 ICT기금사업

블록체인기술 선도 적용(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정보통신산업진흥원)
 블록체인 복합 교육공간 운영(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고문헌

[1] 이종엽(2019년), 2019년 블록체인을 기다리는 당면 과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2019년), 2019년 블록체인 도입 본격화 예상...국가별 정부 지원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로운 전기를 맞은 스마트팩토리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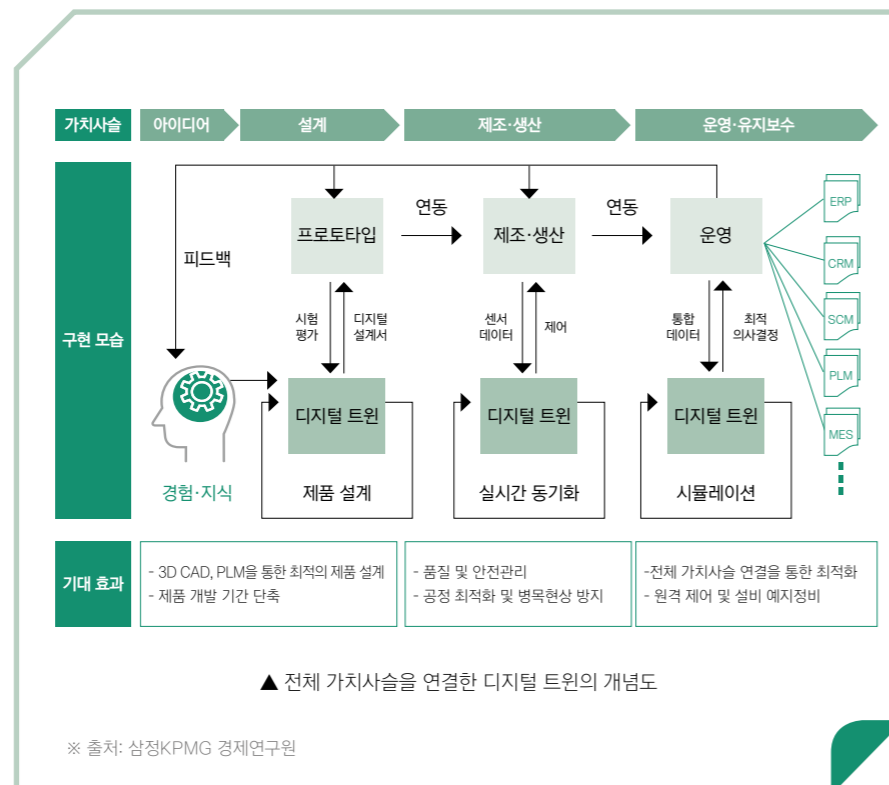
- ▶ 국내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국내 제조업이 수년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위기에 봉착했음.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출 주도의 산업 구조인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제조업의 위기가 대두됨.
- ▶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과 ICT의 융합으로 탄생한 스마트팩토리는 제조업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음.
- ▶ 제조업과 ICT를 융합해 경쟁력을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한 맞춤형 유연 생산 체제로의 전환은 필수가 되고 있음.



○ 스마트팩토리 이슈 및 전망

- ▶ ICT 기술을 융복합화해 제조를 넘어 신가치 창출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팩토리는 최근 5G 기술의 상용화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됨.
- ▶ 5G 통신기술을 통해 현실과 한층 더 가까워진 가상의 공장은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을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됨.
- ▶ 각 공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의사 결정하는 데이터 기반의 공장 운영 체계를 갖춘으로써,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 문제들의 상관관계를 얻어낼 수 있고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돌발 장애, 품질 불량 등의 원인을 알아내고 해결이 가능함.
- ▶ 특히, 미래 공장에는 수십만 개의 엔드 포인트에서 데이터가 수집되는데, 이는 제품의 품질과 설비의 이상 징후, 공정 과정 중 병목 현상 등의 이슈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 특정 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엔지니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임.
- ▶ 3D로 구현된 가상의 공장에서 산업용 VR·AR 기기나,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고 수백 km 떨어진 곳의 설비나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 실제로 일본의 NTT도코모는 건설기계 업체인 코마츠와 협업해 건설 장비에 5G 네트워크를 연결해 원격 제어를 가능케 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음. 5G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제조 환경이 조성되면, 사람이 하기 어려운 업무나 위험한 작업도 가능하며 작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는 기존의 운영기술(OT)에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지능화된 공장을 의미함. 이는 실제 공장과 실시간으로 연동된 가상의 공장인 디지털트윈을 만드는 것임.
- ▶ 디지털트윈은 공장의 물리적 시설을 가상으로 투영시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함.
- ▶ 스마트팩토리는 기존 공정에 새로운 설비와 로봇 장비를 도입해 자동화를 이루는 것을 넘어, 전체 가치사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 전 가치사슬을 연결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 엔진이 탑재된 클라우드 플랫폼에 담아야 하고, 5G 기반의 높은 통신 신뢰도와 초저지연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함. 이 같은 기술적 통합을 위해 디지털 트윈이 제시됨.



○ 결론 및 시사점

- ▶ 공장을 넘어 전체가치사슬을 연결한 디지털 트윈은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 경영 환경을 통합하고 전체 가치사슬을 연결한 디지털 트윈이 제조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돌파구로 평가됨.
- ▶ 디지털 트윈으로 전환될 경우,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팩토리인 자원의 배분과 운송, 물류와 재고, 소비자의 실시간 반응까지 분석·처리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제품 설계와 생산 단계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됨.
- ▶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은 현재는 산업자동화 업체 솔루션이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외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 국내에서도 국산 스마트 플랫폼의 입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산·학·연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 2019년 관련 ICT기금사업

사물인터넷·신산업 육성선도(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한국정보화진흥원)

● 참고문헌

- [1] 조혜지 외 1인(2018년), 스마트 팩토리 기술 및 산업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삼성KPMG(2019년), 5G가 촉발할 산업 생태계 변화

ICT

ESPRESSO



차세대자동차

‘테스트 솔루션’으로 자율주행 포문 연다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자율주행차량에도 적용돼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원문 : <http://www.eng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

UHD

‘옆에서 보면 깜빡임’ 특정 각도에서만 보이는 디스플레이 개발

빛의 광학적 특성인 편광 현상을 이용해 특정 각도에서만 볼 수 있는 보안 디스플레이가 개발됐다. 편광은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빛 중 특정 방향의 빛을 선택해 통과시키는 성질을 뜻한다.

원문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8>

SW

과기정통부, ‘제1회 소프트웨어 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1회 소프트웨어 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

원문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

빅데이터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원문 : <http://www.signalnews.co.kr/30168>

스마트시티

산학연 머리 맞대고 스마트시티 보안위협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스마트시티(부산) 정책추진 초기단계부터 보안위협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 스마트시티 정보보호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문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

스마트디바이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국제 표준화 주도한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국제 표준화 이슈와 미래 로드맵을 공유하는 행사가 열렸다.

원문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

IoT

IoT버스정류장 등 ICT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에 226억 투입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버스정류장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지능형 레일로봇을 통해 공동구 내 환경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이 5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원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3008>

정보보안

5G 시대 주목받는 융합보안… “아직은 미흡”

스스로 차선을 바꾸거나 주차하는 반 자율주행차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 : <http://www.inews24.com/view/1174955>

융복합소재

KIST, 실 모양 트랜지스터 개발

국내 연구진이 옷감에 꿰뚫 수 있는 실 모양의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 트랜지스터는 전기 신호를 증폭하거나 차단·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스위치’다. 새 트랜지스터는 웨어러블(착용형) 제품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 : <http://www.jeonpa.co.kr/news/articleView.html?id>

디지털콘텐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돕는다

국내 연구진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에 나선다. 2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부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발달장애인 가상 직업훈련 콘텐츠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원문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

클라우드

클라우드의 ‘심장’ 데이터센터 설립 줄잇는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확산이 가시화되면서 클라우드 전환의 ‘심장’ 역할을 할 데이터센터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26일 롯데그룹의 IT서비스 계열사 롯데정보통신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서 ‘제4데이터센터’ 신축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원문 : <http://news1.kr/articles/?3607772>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로 ‘산업의 쌀’ 에틸렌 만든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주범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이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유용한 화합물로 변환시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문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

5G

국가 혁신성장 ‘5G+’ 기반 정보보호 강화전략 4가지

정부가 국가 혁신성장 전략인 5G+ 핵심성장 산업·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신규 사이버보안 중장기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2019년)와 함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정보보호 신규 R&D사업(2020년)을 추진한다.

원문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

지능정보

과기정통부, 지능정보기술 공공분야 226억 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2019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19개 과제에 총 22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원문 : <http://www.inews24.com/view/1175477>

차세대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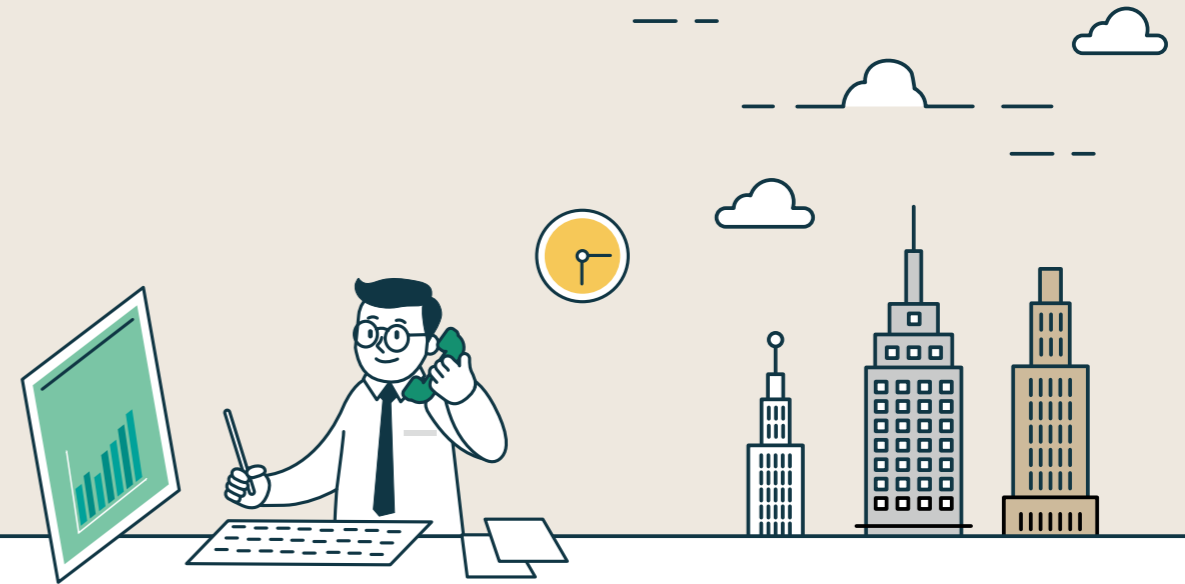
미국 MIT,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힘 모은다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테크노파크원은 26일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문 : 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



ICT기금 위탁사업 실태조사 안내



목적

ICT기금 위탁사업의 수행능력 적정성 및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ICT기금의 투명성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

※ 근거 : 「ICT기금사업관리지침 26조」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위
탁사업에 대한 서면조사를 전수 실시하고, 현장조사는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

일정



위탁사업자
선정

2.19(화) ~ 상시



위탁사업자
PMS 등록

2.19(화) ~ 상시



위탁사업자
전수 서면조사

4.23(화) ~ 상시



현장조사
대상 선정

5월 ~ 상시



현장조사 실시
(수행기관 공동)

상, 하반기 택 1

절차



사전준비
(시스템개선)



서면조사
모니터링



현장조사
대상선정



현장조사
(수행기관 공동)



결과보고 및
이행점검

(서면조사) 시스템에 의해 수행기관과 전담기관(KCA)이 Cross로 PMS 등록 자료 전수 서면조사 실시

(모니터링)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탁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적기에 실시

(현장조사)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실시

(결과보고) 위탁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은 후속조치 현황을 과기정통부에 보고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사항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알림 Talk

<알림 Talk>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사업관리본부의 ICT기금사업 관련 행사 일정을 공유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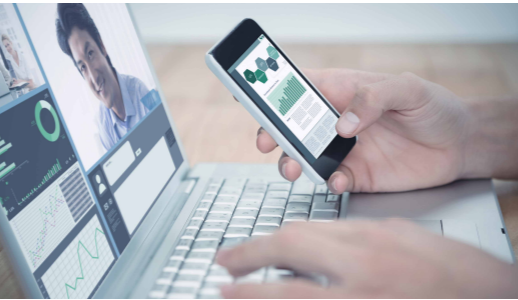


ICT기금사업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위한
채용정보 조사(상시)

목적 : 전국 이공계 대학의 관련 학과에 배포함
으로써 ICT산업 일자리 지원 및 매칭

내용 : ICT기금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정보를 조사·수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년 ICT기금사업 효율적 관리 및 부정
수급 예방 설명회 개최

내용 : ICT기금사업 관리 방향과 사업 수행 시 중점
사항 및 부정수급 예방 등 안내

대상 : ICT기금사업 수행·참여기관 사업 실무자

일정 : 2019.5.23.(목) 14:00 ~ 17:00

장소 : 서울 부영태평빌딩 컨벤션 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ICT기금사업

캘린더

0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	6	7	8	9 • NIPA 2019년 스마트콘텐츠 센터 입주기업 모집 마감	10 • 한국과학창의재단 자유학기제 수업자원인 력풀 명칭 공모전 마감	11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전문기업 조사 용역 입찰 마감
12	13	14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제1차 지역SW기업 기획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15 • KCA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 대상 시상 공모 마감	16	17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019 문화콘텐츠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국내 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기업 모집 마감	18
19	20 • KANI NET 챌린지 캠프 2019 아이디어 공모 마감	21	22 • 한국과학창의재단 2019년 여름방학 쏙쏙 캠프 대학생 참가자 및 초·중학교 모집안내	23 • NIPA 베트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 개최	24 • KISDI 충북혁신도시 스마트 시티 서비스 시민아이 디어 공모전 마감	25
			• TTA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개최 (5.22-5.24)	• KCA '19년 ICT기금사업 효 율적 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설명회 개최	• KOSA 2019년 상반기 SW사업 우수 발주자 추천 마감	
26 • RAPA MCN 오리 지널 콘텐 츠 제작지 원 크라우 드 펀딩 민 간사업자 모집 마감	27	28	29	30	31	

ICT기금 소개



ICT기금은 콘텐츠·방송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ICT 신사업 육성·추진 및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해소, 창업·성장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 및 정보통신 관련 표준 개발 등 정보통신·방송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ICT기금의 설치 목적 및 근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목적)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등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

(설치근거) 방송통신발전기금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목적)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

(설치근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ICT기금의 용도

구분	방송통신발전기금법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인력 양성 사업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시청자 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지원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접근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주파수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 ·정보통신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정보통신 인력 양성사업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즉시 보조금이 환수되며, 최고 5배 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 됩니다.

보조금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해당 사업의 교부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목적)로 사용하면 제재(환수, 수행배제, 제재부가금)대상이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보조금을 반환(환수)합니다.

보조금을 용도(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제재부가금은 위반행위 등에 따라서 환수되는 보조금의 최고 5배 까지 부과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기준 등)

위반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됩니다.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년도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활성화 포럼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행사개요

- 참석대상** 산학연 클라우드 관계자 및 협업체 소속 기관
참가비 무료
일시 2019. 5. 16.(목) 13:30 ~ 17:00
장소 양재 엘타워 지하1층 골드홀(양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번지)
문의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신성 선임
 (031-780-9359, cloud.interop@tta.or.kr)

프로그램

- 클라우드 정부 정책 안내 및 국내외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 강연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컨설팅 지원 사업 설명 등

시간	내용	세부내용
13:30~14:00	접수 및 안내	
14:00~14:10	상호운용성 협업체 소개	협업체 의장(김양우 교수)
14:10~14:35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호운용을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 활용	RedHat 임종진 솔루션 아키텍처
14:35~15:00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소개 및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 사례	아콘소프트 정철 부장
15:00~15:25	융합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기술 개발 사례	이노그리드 김명진 대표
15:25~15:45	Coffee Break	
15:45~16:00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NIPA
16:00~16:15	데이터 바우처 사업 지원 계획	KDATA
16:15~16:30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 및 컨설팅 서비스 소개	TTA
16:30~16:50	협업체 패널 토의	협업체 참여기관
16:50~17:00	경품추첨 및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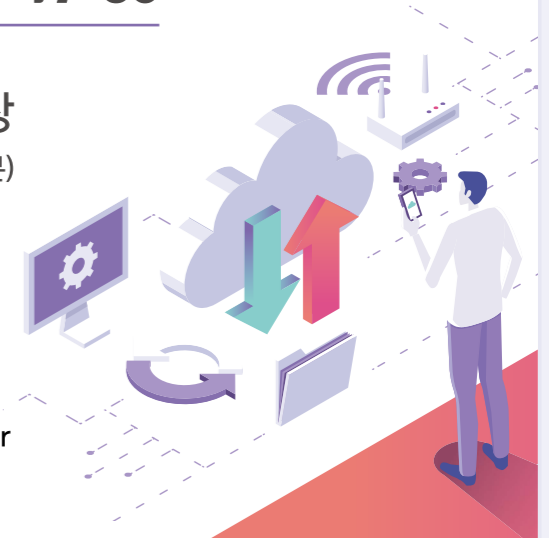
※ 상기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엣지컴퓨팅 표준기술 및 전망 세미나

2019년 5월 24일(금) 13:30 ~ 17:3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9층 교육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서현역 도보 5분)

- 참가비: 무료
- 문의처: 031-780-9387, std_edu@tta.or.kr



프로그램

시간(분)	발표 주제	강연자
13:00~13:30(30분)	접수 및 안내	
13:30~14:10(40분)	엣지컴퓨팅 R&D 이슈 및 기술 전망 소개	이주형 교수(가천대학교)
14:10~14:20(10분)	휴식	
	세션1: 엣지컴퓨팅 표준화 동향	
14:20~15:00(40분)	이동통신 분야 엣지컴퓨팅 표준화 소개	정문영 매니저(SKT)
15:00~15:10(10분)	휴식	
15:10~15:50(40분)	사실표준화기구의 엣지컴퓨팅 표준화 소개	윤주상 교수(동의대학교)
15:50~16:00(10분)	휴식	
	세션2 : 엣지컴퓨팅 관련 플랫폼 및 응용 기술 동향	
16:00~16:40(40분)	엣지컴퓨팅 오픈소스 플랫폼 기술개발 동향 소개	박수홍 그룹장(삼성전자)
16:40~16:50(10분)	휴식	
16:50~17:30(40분)	지능형 엣지컴퓨팅 기술 개발 동향 소개	홍용근 실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 R&D 통합 지원서비스

2019년 ICT R&D EZ-Skill UP
통합 설명회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ICT R&D 과제를 수행 중인 주관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ICT R&D EZ-Skill up 통합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9. 5. 22(수) 14:00 ~ 17:30

장 소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서울 양재동 소재)

참석대상 2019년도 IITP 과제 주관·참여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등 500여명

주요내용

- ▶ 2019년도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규정 관련 주요 이슈 및 '19년 규정 개정 방향 안내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관련 유의사항, 기술료·청년고용 친화형 3종 패키지 안내
- ▶ 부정행위시 법적대응 절차 및 이지원·이지바로 시스템 사용법 안내

행사일정

일정	행사내용		
14:00~14:15	7'	행사안내	● 행사개요 및 발표순서 안내
	8'		● 인사말씀
14:15~15:45	20'	규정, 사업비 집행, 기술료 안내 등	● 사업수행 관련 규정안내 및 2019년 개정내용
	20'		● 사업비 집행 방법 및 유의사항
	30'		● 기술료 및 청년고용 친화형 3종 패키지 안내
	20'		● 문제과제 처리 및 대응방법, 청렴의무
15:45~16:00	15'	중간휴식	
16:00~17:00	30'	시스템 관련	● 이지원 시스템 사용 안내 및 시연
	30'		● 이지바로 시스템 사용 안내 및 시연
17:00~			● 질의 응답

※ 행사일정 및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후관리팀(042-612-8753)

ICT기금 수행기관 채용정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연구원 채용(책임급) (4.24-5.15)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9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 (4.25-5.10)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빅데이터 분야 경력직 모집 (3.5-5.31)



일자리 정책 및 뉴스



일자리 정책

1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 융복합 인재 키워 혁신성장 이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신기술 직업훈련을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업의 경쟁력 키우기에 본격 나섰다.
- 지난 4월 10일 발표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신기술 직업훈련을 크게 늘리기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내놓았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노동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먼저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의 훈련 직종을 뿌리·기간산업 위주에서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바꾸고, 학과를 신설·개편해 신기술 훈련 비중을 점차 늘린다. (2018년 7%→2022년 20%).
- 신산업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직업훈련 기회도 늘린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첨단기술 과정(하이테크 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청년층에게 기존 전문기술과정(기능사과정)과 차별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첨단기술 과정(하이테크 과정)은 학력이 높은 청년층을 고급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직종 특화 과정으로 2016년부터 신설·운영하고 있다.(2016년 시범 운영)
- 정부는 경기도 광명시에 내년 상반기 중 제2융합기술교육원(가칭)을 추가로 만든다. 융합기술교육원은 첨단기술 과정(하이테크 과정) 전용 훈련 기관으로 지난 2016년 성남(분당)에 문을 연 이래 평균 91.4%의 취업률이라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 또한, 기존 폴리텍 캠퍼스의 기능을 조정해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을 늘린다.

※ 출처: 고용노동부(2019.04.23)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9818

일자리 뉴스

2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양과 질 개선

-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18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 지난 한 해 동안 29,571개 기업에서 128,275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에는 8,759개 기업에서 53,384명을 채용했다. 지난해의 경우 1분기까지 예산을 1.5% 집행하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34.7%를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140,456명이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가입자 중 약 39%(55,262명)가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70%(98,324명)가 100인 미만 기업에 취업했다.
- 임금격차 등을 이유로 소규모 기업에 취업하기 꺼려하던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최소 2~3년 간 중소·중견기업에서 경력을 쌓으며 자산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 청년이 55,129명(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업(19,037명, 1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8,645명, 13%)에도 약 3만8천 명이 취업했다.

※ 출처: 고용노동부(2019.04.22.)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9815

일자리 뉴스

3 향후 10년 간 일자리 전망 밝은 직업은?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우리나라 대표직업 196개에 대한 향후 10년 간('18~'27년)의 일자리 전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록한 <2019 한국직업전망>을 발간했다.
- <한국직업전망>은 1999년부터 격년으로 발간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정보서로, 이번 전망은 각종 연구보고서*와 통계청 및 유관 협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량·정성적 전망을 한 뒤, 직업별 유관협회·연구소·현장 전문가 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을 거쳤다.
- * 고용정보원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정성적 직업전망 조사」 등 이어 직업별 향후 10년간 연평균 고용증감을 '감소', '다소 감소', '현 상태 유지', '다소 증가', '증가' 5개 구간*으로 나눠 제시했다.
- 2027년까지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은 19개로, 보건 의료 생명과학, 법률, 사회복지, 산업안전, 항공, 컴퓨터네트워크 보안 관련 분야에서 인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 분야에서는 전통 기법으로 한옥, 궁궐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한식목공이 건물 보수 예산 및 한옥 신축 증가 등의 요인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신재생에너지를 연구·개발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에너지공학기술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 상승, 신재생에너지 강화정책 등에 따라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전문가 심층면접 및 주제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핵심어(keyword)를 분석한 결과,
- * 181개 직업 전체에 대하여 172명의 전문가를 조사함

※ 출처: 고용노동부(2019.04.26)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9835

이번에 채용하는 회사는?



기업명

(주)프론티스



채용분야(주요업무)

- 웹기반 IoT 플랫폼, 솔루션 개발
- ANSYS 기계구조해석 부문
- 가상현실 머신 R&D 및 코딩
- VR/AR/MR UI/UX 기획 및 디자인



공고기간

2019.04.15. ~ 채용시까지



채용문의

김현진 대리 / 031-695-6988



채용공고 홈페이지

http://frontis.co.kr/?page_id=7157

채용분야별 전공 매칭



관련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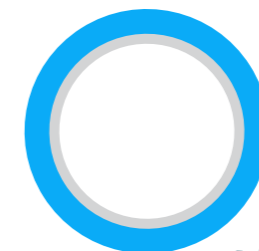
전자정보통신과



IT소프트웨어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등



이번에 채용하는 회사는?



기업명

(주) 가이온



채용분야(주요업무)

- SPLUNK 기반 보안 관제 시스템 개발, IT Operation
- 빅데이터 분석, 개발 및 시스템 운영
- 고객사에서 프로젝트 수행 또는 운영 업무 수행
- SPLUNK 기반 보안, IT Operation 및 마케팅 분석 (신입, 경력)



공고기간

2019.04.01. ~ 채용시까지



채용문의

진용근 / 010-3717-4302 / alex.jin@gaion.kr



채용공고 홈페이지

<http://www.gaion.kr/recruit.html>

관련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수학·통계학과



전자정보통신학과



컴퓨터전자공학과 등

채용분야별 전공 매칭

